

목포 옥암 대학부지, 용도변경 재추진

10년 넘은 대학 유치 물거품에 지원시설 용지로

내달까지 수요 용역 조사...2016년 매각 방침

목포시가 옥암 택지지구내 대학부지의 용도변경을 재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는 “교육환경 변화로 옥암 대학부지 입지 희망대학이 없어 학교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 지역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지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 3월 바이오·의료 복합

단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7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용역을 발주했다. 총 6만여 평의 대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4만 평은 목포대 의과대학을 비롯한 바이오·의료 복합 단지로, 2만 평은 서남권 중증 외상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또 지난 2014년 7월에는 한국병원, BRC(주)와 업무협약 이행여부를 타진했으나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

상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목포대에 투자계획 이행 가능 여부를 협의했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추진이 안 돼 잡초만 무성한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초 입지 수요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택지개발 변경(안)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해 2016년 하반기에 택지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장 안팎에서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조광권 침해와 난개발을 반드시

지양하되 시가 10년 넘게 대학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전국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사실상 대학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3000억 원이 넘는 목포시의 부채 청산을 위한 대학부지 용도변경의 필요성이 절기치게 제기되면서 이 같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총 19만6793㎡(5만9530평)에 달하는 옥암 대학부지는 자연녹지지역(보전용지)으로 건폐율 20%·용적률 100%·허용층수 10층이 적용되는 옥암택지 가운데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별교 꼬막잡이 ‘구름 인파’ ‘제13회 별교 꼬막축제’(10월 31~11월 2일)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갯벌에서 꼬막을 잡고 있다. 별교 꼬막축제 추진위원회(회장 강복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꼬막 맛 따라 태백산맥 문화기행을 별교에서’를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장애인 창업 막막할 땐 ‘장애인기업 지원센터’가 도와드려요”

7일 전남지역 개소...각종 지원

언어 3급 장애인 김모(66)씨는 지난 1985년 후두암 판정을 받아 목소리를 잃었다. 당시 국내에는 국산 인공 후두기가 없고 외국 제품은 고가일 뿐 아니라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 김씨는 스스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개발에 들어갔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연구에 매달린 끝에 기존 제품에 비해 짧은 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의 인공 후두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특히 반영구적이라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자금과 판로가 막막해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알게된 광주·전남 장애인 기업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사무실과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고 지난 9월 ‘전국 장애인경제인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성공적인 기업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와 같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장애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 산하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남지역센터(이하 전남센터)가 오는 7일 무

안군 삼향읍 남악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중기청 장애인기업 육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문을 여는 전남센터는 전남지역의 장애인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위해 보육실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기술·교육·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도에만 설치돼 전남지역 창업 장애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이번 전남센터의 개소로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 8개 보육실을 갖춘 전남센터는 최대

3년간 입주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분야별로 경영·법률·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카탈로그 제작 등 각종 마케팅과 홍보 지원 등으로 창업 초기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재 전남센터 입주업체를 모집 중이다. 입주 기업은 수도·전기요금, 청소용역비 등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격은 예비 또는 창업 3년 이내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실 발생시 입주 희망업체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문의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전화 061-285-7867) /김윤희기자 kimyh@



한은 목포본부 어린이 경제캠프 개최

초등생 70명 초청 진로체험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전경진)는 지난 30일 목포시내 초등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어린이 경제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경제 체험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역여론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의 미래직업과 진로를 알아보는 ‘숨은 나를 찾아라’를

비롯해 ‘기업과 기업이정신’, ‘경제 골든벨’ 등 체험 위주의 흥미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양한 경제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캠프 수강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꼬막’ 11월의 제철 수산물 선정

해양수산부가 4일 꼬막을 ‘11월의 제철 월빙 수산물’로 선정했다.

단백질과 철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꼬막은 예로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는 8진미 가운데 1품으로 진상됐으며, 조상의 제사상에도 반드시 오른 음식이다.

수심 10m까지의 진흙 바닥에 서식하며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맛이 들기 시작한다. 새콤달콤한 꼬막무침은 맛이 좋고 양념장에 곁들여 먹는 꼬막반찬도 일품이다.

조선시대 정약전의 어류학서인 ‘자산어보’에는 “살이 노랑고 맛이 달다”고 적혔고, 조선 성종 때 편찬한 관찬지리

서인 ‘동국여지승람’에는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소개됐던 남해안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는 수산물이다.

조리가 간편하고 소화흡수가 잘 될 뿐 아니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특히 철분과 각종 무기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어른에게는 조절강장제로, 어린이들에게는 성장 발육에 좋다. 빈혈 예방, 시력 회복, 당뇨 병 예방, 음주로 인한 간 해독에도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전남지역 꼬막 생산량은 1282t(67억원 상당)으로 전국 생산량(2660t)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 참조은인파
● 한길통증의학과
● 신한은행
●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사기 9천 사할 지도원 적합 1억6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중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면 대지 317㎡(97)건평 1235㎡(363) 공사지가 14억 5천 투자가치 좋을 14억
-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내 대지 등 2623㎡(357)건축물 대정있음. 대출 9천만원 매도 1500만원
- 광천동 테미널 인근 7층 건물 대지 661㎡(200)건물 741평 대출 15억 전세 4억선 월 1600천 수익 교환도 가능 매도 23억

투자 매도 교환

- 전원생활 적합 장성 삼계면 편백 나무산 36099㎡(10900)9천만원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질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쌍촌동 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평 493㎡(149)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선 수익 노후 안정적인 생활에 적합 5억2천
- 진월동 호반 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영산포와 영암간 도로점 가드 대지 1053㎡(318) 건물 266㎡(80) 쌍촌동 화장동 상가주택과 교환원할 4억5천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평 97㎡(29)1억3천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 좋은 모델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33 은행 10억 8200 교환도 가능할 1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임대

- 쌍촌동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자리 234㎡(71) PC방, 오락실, 생맥주 타운 등 다용도 보증금 5천에 월 220이나 타협해서 조정할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토지 임대
화정동 대로변에 접한 토지, 모델하우스 및 대형 전시장 최적.

- 지역 : 준주거지역
- 지목 : 대 · 면적 : 3,215㎡
- 임대 : 협의(매매도 가능)

투자 만 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이상 한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전녹지지역 (도로 접)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주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접, 전원주택지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준공업지역
평동공단 1번도로 끝 계획도로 접, 전 및 임야 투자적합

- 지역 : 준공업지역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9,027㎡
- 매가 : 3.3㎡ 29만

지번문의 사절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상가건물 임대 150평

농성동 상록회관 근처
현,약품도매상 성업중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150평)

대형주차장 완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

062)367-1254
062)367-125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